



군산중앙실험, 은파호수공원에서 '실험정원 플로깅'

군산중앙실험(이사장 서대근)은 지난 17일 군산시 내운동 은파호수공원 내 실험정원 일대에서 CU공유마켓 기부자와 수혜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플로깅(Plogging)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깨끗한 자연과 환경을 미래세대에 기부하자'를 슬로건으로 진행했으며, 참가자들은 실험정원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실험정원은 실험사회공헌재단과 군산지역 10개 실험이 협력해 지난 2023년 조성한 주민 휴게공간이다. 은파호수공원 내 충혼탑 인근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국정원과 윈터 등을 마련했으며, 올해 재정비 사업을 거쳐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플로깅 행사에 참여한 CU공유마켓은 군산중앙실험이 운영하는 지역사회 나눔 사업으로, 실험사회공헌재단의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의 일환이다. 군산중앙실험이 지원하는 물품과 지역 주민들의 기부 물품을 모아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복지사업으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새만금청, AIK-POP 아이돌 그룹 '만금 보이즈' 선보여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호)은 인공지능(AI) 기반 케 이팝 아이돌 그룹 '만금 보이즈(MANGUM BOYZ)'의 데뷔 싱글 '새만금 Reset' 뮤직비디오를 공식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산업과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만금 보이즈'는 3인조 인공지능(AI) 아이돌 그룹으로 메인보컬 '신시(Shinsi)'는 새만금의 비전과 희망을 상징하며, 퍼포먼스 보컬 '가력(Garyeok)'은 도전과 혁신 정신을, 메인래퍼 '야미(Yami)'는 역동성과 추진력을 콘셉트로 담았다. 새만금개발청 공식 유튜브에 공개된 데뷔곡 '새만금 Reset'은 새만금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산업 중심지로의 전환을 주제로 제작됐다. /이만호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학부모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18일 전주지곡초등학교에서 학부모 3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CPR)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부모들의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높이고 가정과 학교의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주학부모 커뮤니티 응급처치 동아리인 안전활동가 '온맘'의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심폐소생술(CPR) 실습을 비롯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하임리히법 등 실제 응급상황 중심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교육용 마네킹을 활용해 응급처치 기술을 익히며 위기 대응 능력을 높였다. /오상근 기자

'Made in 진안' 7번째 가족편 성황리 개최

진안군, 관내 어린이집 원아·군민들 참여 속에... 다채로운 문화 공연·체험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진안문화원이 주관하여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Made in 진안'의 7번째 순서인 '가족편' 행사가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7일 진안문화의집 야외무대와 마이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낮 시간대의 '가족편 I(어린이집 대상)'과 저녁 시간대의 '가족편 II(전 군민 대상)'로 나누어 각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꾸며졌다. 오전 10시부터 진안문화의집 야외무대에서 진행된 '가족편 I'에는 관내 어린이집 5개소(사랑, 율령원광, 진안, 진안제일, 마령어린이집)의 원아 104명과 교사 19명이 참여했다.

아이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마린보이 서커스 공연에 환호성을 질렀으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시원한 빙수 만들기 체험과 △문화가 있는 날 굿즈(키링) 만들기 체험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군은 어린이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마쳤다.

이어 저녁 6시 30분부터 진안문화의집 마이홀에서 진행된 '가족편 II' 행사 역시 군민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우리 가족' 공연이 무대에 올



라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특히 저녁 공연은 일찍이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사전접수(150석)가 마감된 데 이어, 공연 당일 선착순으로 배부된 현장 예매분(54석)까지 매진을 기록하며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문화적 감성을 증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Made in 진안' 가족편 행사가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상 속 구석구석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산동면 지사협, 직접 심은 하지감자 나눔 활동

남원시 산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안길재, 최기성)는 지난 18일, 직접 심은 하지감자 10kg 100여 상자를 수확, 주민들과 나눔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매년 마을 주민이 무상으로 임대한 유휴농지 약 400여평에 감자, 고구마 등을 직접 파종하고 수확,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면서 안부를 살피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주민 우선의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번 하지감자 전달을 통해 파악된 수치를 토대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및 각종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도의 접근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경찰, 노쇼 사기 홍보 영상 제작 주무관 4명 표창

군산경찰서(서장 임정빈)는 18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쇼(NO-SHOW) 사기 홍보 영상을 제작·배포하여 범죄 예방에 기여한 군산시청 공보협력과 직원 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해당 영상은 최신 유행하는 밈 '꼬마선장', '숯박스 할래 말래'를 패러디하여 노쇼 사기 실제 수법과 예방법을 시민들이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온라인(인스타, 유튜브, 전북경찰청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배포되어 범죄 예방 효과(약 17만뷰)를 높이고 있다.

군산경찰서장은 "노쇼 사기를 전 국민에게 알리려는 기초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홍보 활동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순창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협력 강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박차

순창군이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운영과 함께 전북 지역 내 참여 지자체들과의 협력체계 강화에 나서며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17일 순창발효관광재단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전북지역 협의회'에 참석해 전북 내 참여 지자체 및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췄다.

이번 협의회에는 전북 내 참여 지자체와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그간의 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도입한 플랫폼 사업이다. 관광객에게 숙박, 체험, 식음료, 쇼핑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순창군은 한국관광공사의 '2026년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규 참여지역 공모'에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 6월 8일부터 전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본격 가동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우수사례를 적극 반영해 많은 관광객이 순창에 머물며 즐길 수 있도록 차별화된 콘텐츠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증을 발급받은 후 순창 지역 내 참여 관광지와 업체에서 QR코드를 제시하면 풍성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순창=이양민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용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674	남원지사 632-3996	익산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6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8-98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읍교육지원청, 청렴 조직문화 워크숍 운영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홍훈)은 17일 직원 간 상호존중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함께 만드는 청렴한 조직문화 워크숍'을 운영했다.

이번 워크숍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 친화적 공간에서 진행됐으며, 전문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을 통해 직원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참석자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읍교육지원청은 이날 의견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감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